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경축</b> <b>재외동포청 개청</b>
	배포일자	2023년 6월 4일(일) 총 5매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포용기반팀장 • 담당자	이진오 ☎440-2176 권미정 ☎440-217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참고자료</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권교육 통해 시민중심 행정구현**  
 - 주제별 영화관람 통해 소통 공감 능력 향상 -  
 - 청소년 인권·차별과 혐오 대응·장애의 이해 ... 3개 주제로 영화 선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31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 3일간 시, 군·구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인권교육은 주제별 영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인권침해적 사회를 바라보고, 인권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영화 「다음 사회」(2023, 한국), 「차별」(2021, 한국), 「코다(CODA)」(2021, 프랑스) 관람을 통해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 유린문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공직자들의 공감 능력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돕고자 했다.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각

각의 인권에 관련한 주제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스스로 재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자신의 삶 또는 직무와 연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 60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94.5%로 나타났 으며, 특히 영화 교육을 통해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 견이 93.6%로 나와 교육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에 참석자들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 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수가 응답했다.

시는 이번 교육과정 이외에도 올 하반기 인권도서 작가를 초청해 우 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 침해에 관한 쟁점을 토론하는 「공직 자 인권아카데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이 우리 사 회 약자에 대한 공직자들의 진정성과 배려심을 일깨워 1000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 궁극적으로 초일류 세계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붙임> 1. 행사사진  
2. 인권영화교육 안내자료

<관련사진>



**붙임1**      **2023년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1차)**

교육일	교육 주제	주제영화
5. 31.(수) 15:30~18:00	청소년의 인권	다음소희

오늘 영화 교육의 주제는 ‘**청소년의 인권**’ 입니다.  
 현장실습생은 인권의 주체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 게 **인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교육의 이름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하지만 취업은 아니라 **노동권이 부정되고**, 현장 일이 교육이라며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희**”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음소희(2023)**  
15세 이상,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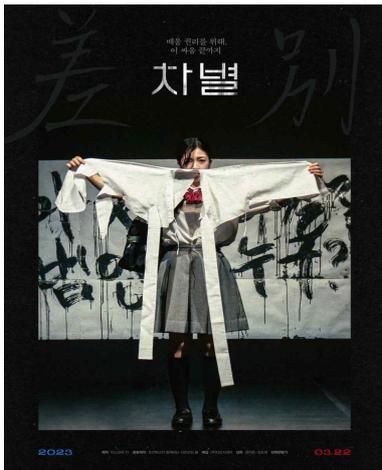
전주에서 일어난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는 당찬 열여덟 고등학생 '소희'가 현장실습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다룬 영화.

각계의 호평을 받으며 백상예술대상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3관왕을 차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도 잇따랐으며, 영화 개봉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른바 '다음소희 방지법'이 3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파급력이 있었다.

교육일	교육 주제	주제영화
6. 1.(목) 16:00~18:00	혐오와 차별 대응	차별

오늘 영화 교육의 주제는 ‘혐오와 차별’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에서 출발했던 혐오표현이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의 양극화와 극단적인 이분법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할 때 언어도 함께 변화하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혐오와 혐오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대신 배제가, 배려대신 차별이 우리 안에 파고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차별(2021)  
전체관람가, 한국

2010년 4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를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작했다. 단,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이 다니고 있는 조선학교는 일본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였지만 법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화 '차별'은 고교무상화 제외 등 일본 사회 속 재일동포를 향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맞선 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교육일	교육 주제	주제영화
6. 2.(금) 16:00~18:00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	코다(CODA)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 즉,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합니다. 이번 인권영화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의 꿈과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과 루비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지, 농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지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다(2021)  
12세 이상, 미국·프랑스

코다는 프랑스 영화 <미라클벨리에>의 리메이크작. 농인 아빠 프랭크와 엄마 재키, 오빠 레오를 연기한 배우들은 실제 농인이다. 세 배우 모두 탄탄한 연기력이 장점인데, 영화에서 유쾌하면서 다소 철이 없는 가족으로 그려져 매력이 떨어진다. 다만 루비를 연기한 배우 에밀리아 존스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와 짊어져야 할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성장기 청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코다>의 강점은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연출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영화는 중간중간 들리지 않는 가족들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손선우 글 일부 발췌